

300년 이상 고택 모인 영덕 인랑리 마을...양평 하늘숲길...지리산 노고단 정상...

빛장 풀리는 40곳, 가을나그네 어서 오라

‘2016 가을 여행주간’ 꼭 가볼 곳

전국 26개 지역 관광지 한시적 개방
트레킹·등산 숲은 명소도 출입 허용

‘영덕 인랑마을로 갈까, 나로우주센터를 갈까.’

가을 단풍이 절정을 맞을 24일, ‘2016 가을 여행주간’이 시작된다. 여행주간은 내수를 활성화하고 국내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14년 봄에 처음 시작한 전국적인 행사다. 올해는 ‘숨겨진 대한민국이 열립니다’라는 주제로 26일부터 11월6일까지 14일간 진행된다.

3년째인 올해 가을 여행주간에 가장 기대를 모으는 프로그램은 미개방 관광지 개방이다. 보존 문제 등으로 일반에 공개하지 않던 전국 26개 지역 40여 곳의 명소를 여행주간에 한시적으로 개방(개방시간 연장 및 인원 확대 포함)한다. 그동안 반복적으로 지적됐던 ‘여행주간을 대표할 만한 콘텐츠나 상품이 없다’는 문제를 풀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야심차게 시도하는 기획이다.

이번에 한시 개방하는 미개방 관광지는 300년 이상 된 고택이 모여 있는 영덕 인랑리 마을을 비롯해 세계기독교유산으로 지정된 유교박물관을 보관하는 안동 한국국학진흥원 장판각, 고희 나로우주센터 발사현장, 청도 운문사, 보현산 천문대 연구시설 등 평소에는 가볼 수 없는 전국의 숨은 명소들이 포함됐다. 양평 하늘숲길, 지리산 노고단 정상부와 광주 무등산 정상 등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됐던 트레킹과 등산 명소들도 여행주간에 시간제 및 홈페이지 선착순 접수, 특정일(무등산 11.5) 공개 등을 통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경주 양동마을에서 촬영한 ‘2016 가을 여행주간’ 포스터. 이번 여행주간은 24일부터 11월6일까지 대한민국 전역에서 진행된다. 사진제공 | 문화체육관광부

해 한시 개방한다.

국민의 참여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이벤트도 실시한다.

대표적인 것이 ‘오프닝 에디터’다.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문화기획에 적극적인 젊은이들이 지역 오프닝 에디터로 나서 여행주간 페이스북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다. 오프닝 에디터들은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지역에 숨은 명소를 소개하고 관광코스 실시간 가이드, 맛집 소개 등을 담당한다.

●백화점식 나열, 생색내기 할인은 과제

여행주간은 실시 초기의 우려와 달리 3년째를 맞으면서 점차 단계에 접어들었다. 실제로 참여인원과 소비 지출액에서는 가시적인 성과도 거뒀다.

2014년 봄 1505만 명이던 국내여행 참가자는 올 봄 여행주간에는 2395만 명으로 늘어났고, 여행주간 지출금액도 2014년 봄 2조173억원에서 2016년 봄 2조8334억원으로 늘었다.

문제도 있다. 지자체와 참여업체의 각종 콘텐츠와 상품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는 ‘생색내기 구성’은 올해도 변함없이 반복됐다. 여행주간은 각 지자체마다 대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전국 15개 지역 주민사업체의 관광둘레 프로그램, 국립공원관리공단의 125개 프로그램, 12개 지역의 19개 생태관광 프로그램 등 양적으로는 풍성하다. 하지만 아쉽게도 프로그램들을 깊이 살펴보면 여행주간에 맞춰 특별히 기획하거나 준비한 것 보다는 기존에 운영하던 콘텐츠

2016 가을여행주간 핵심할인	
관광시설	●4대공 및 종묘 50% ●에버랜드, 롯데월드, 서울랜드, 경주월드, 이월드 등 유원시설 최대 40% ●제주도렛츠런파크, 무주태권도원 무료개방
체험	●83개 템플스테이 1만원 ●102개 농촌체험마을 최대 20% ●13개 창조관광체험 최대 40%
교통	●롯데렌터카 전국 170개 지점 최대 80% 할인
숙박	●한화호텔&리조트, 호텔현대, 이랜드파크, 일성콘도&리조트 특가판매 및 최대 70% ●호텔연호, 세일투나잇 할인 및 특전 제공 ●굿스테이 79개소, 베니키아 52개소 최대 20%
쇼핑/유통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온라인) 최대 3천원 할인 ●CU편의점 1천원 연합인
음식	●대구 지역특색음식거리 97개소 참여 ●부산 돼지국밥골목, 의정부 부대찌개거리 등 지역별 음식테마거리 할인제공

츠의 명칭만 바꾸거나 구성만 조금 보강하는 등 구성 갖추기에 그친 것이 상당수다. 또 1만3583개에 달하는 여행주간 참여업체의 각종 할인도 비율이 낮아 여행객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거나 예약이 어려워 실제로는 이용하기 힘들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여행주간의 프로그램을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누리기 위해 필요한 각종 학교의 임시 휴무나 직장인 휴가 사용 등에서는 뚜렷한 해결책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40분만 달리면 가을 단풍속으로...

가을 단풍절이 왔다. 서울 도심에서 차로 1시간 이내의 가까운 곳에도 무르익어가는 가을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단풍 명소들이 있다.

서울 강남에서 40분 거리인 경기도 광주 곤지암 화담숲(사진)은 14일부터 ‘곤지암 화담숲 단풍축제’를 연다. 내장 단풍, 당단풍, 털단풍 등 480종의 단풍을 만날 수 있다. 135만5000m² 부지의

숲속산책길과 17개 테마원 가운데 단풍을 잘 즐길 수 있는 곳은 가재계곡, 소나무정원, 암석원이다.

가재계곡은 붉은 내장단풍이 유명하고, 푸른 소나무와 단풍이 어우러진 소나무정원의 절경은 곤지암 화담숲의 자랑거리다. 암석원에서는 단풍이 가을 역세와 수크림이 어우러져 가을 정취를 잘 느낄 수 있다.

광주 곤지암 화담숲·용인 에버랜드 서울 근교서 가을 즐기 안성맞춤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도 서울 근교의 대표적인 단풍 명소다. 가을을 맞아 힐링 코스, 코키아 코스, 아트랙션 코스, 드라이브 코스 등 단풍을 즐기 좋은 4가지 추천코스를 마련했다. 올해는 20년간 일반에 공개하지 않았던 비밀정원 숲속 산책로를 21일 처음 오픈한다. 콜럼버스대탐험부터 썬더폴스까지 이어지는 570m 길이의 숲길이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아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한 곳으로 단풍나무, 참나무, 오토나무부터 최대 20m까지 자라는 향목련 군락, 서양철쭉 아열대야 등을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홈플러스, 전남 해남산 절임배추 사전예약 판매

홈플러스가 11월23일까지 전남 해남산 배추로 만든 절임배추 사전예약 판매를 실시한다. 올해에는 1~2인 가구를 위해 5kg 절임배추도 새롭게 선보인다. 절임배추는 5kg 1만1000원, 10kg 2만원, 20kg 3만9000원에 판매한다. 신한/삼성/KB국민카드로 결제 시 2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경제현장.jpg

SK텔레콤, 중저가스마트폰 ‘루나S’ 출시



SK텔레콤이 스마트폰 ‘루나S’를 출시하며 가을 중저가 전용폰 경쟁에 불을 지폈다. 출고가 56만8700원이며 전면 1300만 화소 카메라 등 기존 중저가 스마트폰에서 시도하지 않은 기능을 탑재한 것이 특징이다. 사진설명 | SK텔레콤

하반기 스마트폰 시장 소용돌이 예고

‘갤노트7’ 퇴장에 경쟁제품 유리 ‘아이폰7’ ‘픽셀 V20’ 등 관심 ↑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이 링에서 퇴장하면서 하반기 국내의 스마트폰 시장에 소용돌이가 예고된다. 먼저 삼성전자는 최신 프리미엄 제품의 초기 단종으로 위기에 처했다. 국내에서 판매된 갤럭시노트7은 13일부터 다른 기종으로 교환하거나 환불을 해준다. 삼성전자는 일단 올해 3월 내놓은 ‘갤럭시S7’ 등에 기밀 수박에 없는 상황이다. 삼성전자의 다른 스마트폰으로 교환할 경우 3만원 상당의 모바일 이벤트를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하지만 가장 최신 전략 제품인 갤럭시노트7의 단종으로 국내외 시장 경쟁에서 매우 불리한 위치에 놓인 것은 사실이다. 실제 삼성전자는 12일 갤럭시노트7 단종에 따른 손실을 반영해 지난 3분기 연결기준 잠정 영업이익을 7조8000억원에서 5조2000억원으로 조정 발표했다.

경쟁 제품이 줄줄이 시장 공략을 가시화하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애플은 ‘아이폰7’의 세를 확장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14일부터 예약판매를 시작하고 21일 공식 출시 예정이다. 업계에선 갤럭시노트7의 단종에 대한 반사이익

을 아이폰7이 가장 많이 누릴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스마트폰은 구글의 ‘픽셀’이다. 구글은 최근 직접 기획·설계한 첫 자체 브랜드 스마트폰 픽셀을 공개하며 이목을 집중시켰다. 특히 안드로이드 진영에 큰 파장을 불러왔다. 안드로이드폰의 선봉에 섰던 갤럭시노트7이 발화사태에 이은 단종 결정으로 때 아닌 기회로 맞았다. 구글은 20일 미국 등에서 픽셀을 시판할 예정이다. 같은 안드로이드폰이라는 점에서 갤럭시노트7을 이용했거나 구입하려했던 이용자들에게는 새로운 대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대화면 프리미엄폰 ‘V20’을 내놓은 LG전자와 해외로 눈을 돌린 화웨이 등 중국 업체들도 상대적으로 낮은 브랜드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국내에선 12일 출시된 SK텔레콤 전용의 ‘루나S’ 등 중저가 제품에 대한 관심도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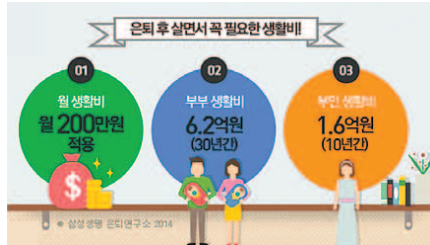
김영근 기자 dionys@donga.com

■본사 손님

▲한국마사회 전성원 마케팅본부장=신임 인사자.

비즈갤러리

안정적 재테크 개인연금보험 주목



개인연금보험이 안정적인 노후대비 재테크 방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저금리 시대에 제각각 저축성보험 상품으로 최저보증이율이 적용돼 금리가 크게 떨어진다 해도 시금리와 관계없이 복리혜택을 보장 받을 수 있다.

개인연금보험은 비교세 혜택이 있는 연금보험과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보험으로 구분된다. 노후대비가 주목적이라면 10년 이상 유지 시 비교세혜택이 있는 연금보험을,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직장인이라면 연 400만원까지 납입 시 최대 66만원을 환급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비교세연금보험이든 세액공제 연금저축보험이든 중도 해약 시 원금 손실이 될 수 있는 상품이니 중도해지를 방지할 수 있는 중도인출, 추가납입 등의

기능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좋다. 다양한 개인연금저축보험, 비교세연금보험, 세액공제연금보험 등을 알아보고 싶다면 연금저축비교사이트(news.insvalley.com/news.jsp?subAP=Y038)을 활용하면 좋다. 이 사이트는 삼성생명, 중앙생명, 미래에셋생명, 교보생명, IBK연금보험 등 30여개 보험사 상품을 비교하고 예상 연금수령액을 실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다.

대치동 수학과외사이트 ‘올댓매스’ 인기



대치동 수학교육법인 과외사이트 ‘올댓매스’가 심화학습의 중요도를 강조해 학부모들 사이에서 주목받고 있다. 김성곤 올댓매스 대표원장은 “학부모님들이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무조건적인 선행을 하는데, 심화에 초점을 맞춰 공부해야 한다”고 했다. 같은 1등급 학생이라고 개

인마다 부족한 단원과 취약유형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한 문제 차이로 1등급과 2등급을 오가는 학생들은 문제 풀이에 필요한 기술적인 유형스킬 훈련이 필요하다. 게다가 1등급을 구별하고자 내는 문제들은 많은 문제를 푸는 것보다 특징적인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실수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학생별 취약부분까지도 집중 관리해야 한다. 상위권 학생들 중에서도 쉬운 문항에서 실수로 점수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 2등급 학생들의 실수는 자만이다. 본인인 천천히 지역에서 오직 수학만을 가르치는 프리미엄 1대1 회원제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대표전화(02-558-9553)를 통해 사전 예약제로 진행되며, 서울상위 5개 대학 출신의 연구원들이 직접 교육서비스를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운전자보험 비교사이트 활용하세요”



운전자보험은 자동차 보험과 다르게 차를 선택적으로만 가입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사고 시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자각하지 못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상당하다. 최근 형사적, 행정적 책임 및 교통사고 시 육체적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보장해 주는 운전자보험을 준비하는 운전자들이 많다. 운전자보험은 운전 중이나 재해로 인한 본인의 사망사고 시 가입금액을 지급한다. 가해자가 돼 피해자가 후유장애 및 사망 시에 유가족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며, 형사합의지원금과 중상해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보장해준다. 또 사고로 인해 구속 또는 공소제기 시 방어비용을 보장하고, 사고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혀 확정판결에 의해 정해진 벌금을 보장해 준다. 운전자보험은 벌금과 방어비용은 보장이 되도록 큰 것을 선택하고 보험금 지급이 원활하게 되는 회사

를 고르는 것이 좋다. 요즘 운전자보험 비교사이트(www.drivingins.com)를 활용해 가입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특히 상품마다의 장단점과 보장내역 등을 꼼꼼하게 알아볼 수 있어 효율적이다. 사이트에서 실시간 보험료 계산을 해본 후 전화나 이메일로 상담하면 되며, 보험금 청구 대형 및 계약 변경과 같은 서비스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역세권 ‘인천 주안 지웰에스테이트’ 분양



인천 남구 주안동 역세권에 브랜드 오피스텔 ‘인천 주안 지웰에스테이트’가 분양 중이다. 이 단지는 지하 4층~지상 35층에 아파트 186세대와, 오피스텔 270실

2개동,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된다. 아파트는 전용 59m² 단일세대로 공급되며 확장을 하면 전용률이 97%나 된다. 오피스텔은 전용23m² 단일세대로 공급된다. 인근에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을 중심으로 구월로테오거리 상권이 형성돼 있다. 홈플러스, CGV 등 생활편의시설과 주안체육공원, 인천문학경기장, 중앙공원, 수봉공원 등 여가시설도 풍부하다. 가까운 곳에 2020년 완공 예정인 의료복합타운이 조성되면 여성아동을 위한 850개 병동 규모의 종합병원이 들어선다. 단지 주변에 복합쇼핑몰과 레지던스 호텔 등이 들어서 유동인구 150만명, 1만명의 고용창출이 예상된다. 단지 인근에 지난 7월 개통한 인천 지하철 2호선은 개통해 한 달 만에 300만명이 이용했다. 인천 지하철 2호선은 건암역을 통해 KTX로 환승이 가능하다. 건암역의 KTX는 하루 22회 이용이 가능하며 호남선 경부선을 이용할 수 있다. 현재 특별세대 한정 분양 중이며, 중도금 무이자와 발코니확장이 기본으로 제공된다. 분양료의 1599-7631.

편집 | 최혜경 기자 hk7048@donga.com